

3/28 월요일

시 36:8-9

8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9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딤편 1:4

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요 1:4, 14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롬 14:17

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엡 3:19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엡 4:16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계 21:2, 10-11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시편 36 편 8 절 상반절은 죽음을 통하여 풍성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8 절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기름진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강은 그 영을 가리킨다. 그런 다음에 9 절에서는 ... 샘이 아니라 근원과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언급한다. 원천은 참된 근원임에 비하여, 샘은 그 원천의 솟아 나옴 또는 솟구쳐 오름이다. 생명의 원천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가리킨다. 9 절은 계속해서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라고 말한다. 빛은 또한 아버지를 가리킨다.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빛의 근원이시기도 하다. 생명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빛이 온다. 이것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한 요한복음 1 장 4 절과 일치한다. 고대의 시편 작가가 쓴 시의 그러한 짧은 부분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기름진 것이신 그리스도와, 강이신 그 영과,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놀랍다! (장로 훈련, 2 권, 주님의 회복의 이상, 13 장, 236-237 쪽)

---

우리가 시편 36 편 8 절과 9 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 안으로 일해 넣으시어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심으로써 그들의 온 존재를 신성한 삼일성으로, 즉 원천이신 아버지와 기름진 것이신 아들과 강이신 그 영으로 적시고자 하신다는 통제하는 이상에 의해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통제하고 지시하는 이상이다. ... 그러한 이상이 없다면, 여러분은 시편 36 편 8 절과 9 절에 근거한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매우 알을 것이며 신성한 삼일성에 속한 것을 전혀 다루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이 스트롱의 성경 종합 용어 색인>을 참고하여 기름진 것이 희생 제물의 기름진 재를 가리킨다는 것을 발견할지라도, 그러한 이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결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반드시 통제하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은 희생 제물이라는 단어를 볼 때, 이것이 신성한 삼일성의 둘째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의 강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그러한 이상이 없다면 이 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로마서 14 장 17 절은 하나님의 왕국이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강을 다시 언급한다.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은 기쁨의 강이다. 또한 우리는 기쁨의 강이 기쁨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우리가 이 열쇠를 취할 때, 성경의 모든 부분을 열 수 있다.

성경의 모든 책이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증한다. 왜냐하면 성경전체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께 구속받은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사람들 안으로 일해 넣으심으로써 그들의 누림과 음료, 그들의 생명과 빛의 원천이 되신다는 원칙에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신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하든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끝이 없다. 그럴 때 성경의 어떤 부분을 사용하든지 여러분의 메시지는 매우 풍성해질 것이다. 그것은 기름진 것으로 충만할 것이고, 기쁨의 강의 흐름으로 충만할 것이며, 생명과 빛의 원천으로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의 메시지와 사역은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이 말하고 가르치며 전파하는 모든 것 안에,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하나의 내재적인 원칙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나의 부담이다. <라이프 스타디> 한 메시지를 몇 줄 읽고서 거기서 몇 가지 요점과 제목을 뽑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러한 원칙으로 조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여러분에게 이상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는 눈과 이해하는 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여는 열쇠는 없다. 여러분에게는 열쇠가 필요하다. (장로 훈련, 2 권, 주님의 회복의 이상, 13 장, 23924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2-4, 7 장;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3-4 장

3/29 화요일

요 4:14, 23

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23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12:13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전 15:45b

45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 7:37-39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시 46:4

4 강이 하나 있어 그 흐름이 하나님의 성을, 가장 높으신 분의 장막의 거룩한 곳을 즐겁게 한다네.

계 22:1-2

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삼일 하나님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세 단계로 흐르신다. 요한복음 4 장 14 절 하반절에서 원천이

솟아오를 때 그것은 원천의 나타남이다. 그런 다음에 강이 흐른다.

이렇게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신다(요 4:14). -에 이르다(into)'로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는 그 의미가 풍성하다. 여기서 그것은 목적지에 대해 말한다. 영원한 생명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의 목적지이다. 원천은 우리 안에서 샘솟아 올라 강이 되어 목적지에 이르고 있다. 이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이다. 새 예루살렘은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의 총체이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다'라는 말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다'라는 뜻이다.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그 신성한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흐르는 무언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요한복음 4 장 14 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온 성경이 필요하다. 아버지는 근원인 원천이시고, 아들은 샘이시며, 그 영은 흐르는 강이시고, 이 흐름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 곧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을 통하여, 확산을 통하여, 분배를 통하여 흐르신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4 장, 186 쪽)

---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결되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의 총체이다. 새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수는 12 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행정안에서 피조물인 사람과 연합되시는 것을 의미한다. 삼일 하나님은 숫자 3 으로 상징되시고, 사람은 숫자 4 로 상징된다. 3 곱하기 4 는 12, 곧 열둘이다. 새 예루살렘에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기초가 있고(계 21:14),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진주인 열두 문이 있으며(21:12), 열두 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22:2).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임을 보여 준다.

삼일 하나님은 생수가 되시는데, 요한복음 4 장에서 주 예수님은 바로 이 생수를 사마리아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여인에게 주셨다. ... 원천은 아버지이다. 이 원천이 나타나거나 솟아날 때, 그것은 아들이다. 그 샘이 강으로 흐를 때, 그것은 그 영이다. 그리고 이 강은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혹은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우리가 이 물을 마실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원천이 되어 ... 샘으로 솟아나고, 샘은 강으로서 흘러 나가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 ...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흐르실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흐르신다. 그분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흐르게 하심으로써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실 것이다. -에 이르다'라는 말은 또한 '이 되다'를 의미한다. 새 예루살렘에 이르다'는 새 예루살렘이 되다'를 의미한다. ...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 있다.

솟아 나오는 것은 흐르는 샘이다. 강은 그 흐름 안에 암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에 이르다(into)'라는 말은 '~로 귀결되다', '-이다. -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새 예루살렘은 삼일 하나님의 흐름을 통하여 있게 될 것이다. 성경의 시작에는 하나님께서 계셨다. 성경의 끝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 태초에 곧 영원 과거에 말씀께서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영원 미래에 말씀은 새 예루살렘이 되신다.

고린도전서 12 장 13 절은 “우리가 ... 모두 ...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라고 말한 가다. 이것은 몸이 우리와 분리되어 있거나 우리가 몸 안으로 넣어졌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몸 안으로 침례 받았음을 의미한다. 그 영의 침례는 우리 모두를 함께 몸이 되게 한다. 안으로(into)'는 되다'를 의미한다. 우리는 침례 받아 한 몸이 되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시고 섞이시고 합병되신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4 장 14 절 후반절이 성경 전체를 다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4 장, 188-19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 권, 성경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 상, 1-3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사랑의 말씀, 2 장

3/30 수요일

눅 1:35

35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마 1:20-21, 23

20 그가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보아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대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십시오.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21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3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임마누엘은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마 3:16-17

16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셨다. 보아라, 하늘이 그분께 열렸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17 보아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

사 61:1

1 낮선 이들은 서서 너희의 양 떼를 먹이고 외국인의 아들들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되리라.

딤후 3:15-16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16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딤후 4:22

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누가복음 1 장 35 절은 주 예수님의 신성한 잉태에 관한 말씀이다. 이 신성한 잉태 안에는 신성한 삼일성이 계시되어 있다. 누가복음 1 장 35 절은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것과, 가장 높으신 분(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덮으시는 것과, 거룩하신 분(하나님의 아들)께서 출생하시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신성한 삼일성 전체가 사람 구주의 잉태와 관련되었다.

마태복음 1 장 20 절부터 23 절까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출생을 말한다. 20 절과 21 절은 성령에 의한 신성한 잉태와 예수님(아들)의 출생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런 다음 23 절은 이분이 사람들에게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임마누엘이라 불리셨다고 말한다. 이 절들은 구주의 육체 되심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께서 일하신 것을 다시 한번 계시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과 함께 계시는 것은 성령에 의한 신성한 잉태와 아들 예수님의 출생의 결과였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4 장, 55-56 쪽)

---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마태복음 3 장 16 절과 17 절은 신성한 움직임 안에 계신 신성한 삼일성을 계시한다. 이 절들은 예수님께서 침례의 물속에서 계신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아들) 위에 내려오신 것과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그리스도 위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신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는 그분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인 바르는 기름을 그분에게 부으셨다.

고대에 왕이나 제사장들은 취임하기 위해 기름부음을 받아야 했다. 기름부음은 임명을 확증하는 것이다. 임명되신 그리스도는 열린 하늘 아래 물속에 계셨으며, 삼일 하나님에게서 경륜적인 영으로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본질적인 영으로 나셨다. 하나님의 영께서 주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분은 성령으로 나셨는데(눅 1:35), 이것은 그분께서 이미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갖고 계셨음을 증명한다. 그것은 그분의 출생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그분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께서 그분 위에 내려오셨다. 이것은 새로운 왕이신 그분께 기름을 붓고 그분을 그분의 백성에게 소개하는 것에 관한 말씀인 이사야서 61 장 1 절과 42 장 1 절과 시편 45 편 7 절의 성취였다. 그분은 출생을 위해 본질적인 영으로 잉태되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서 존재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삼십 년 후에 그분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그분께서 침례의 물속에서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셔서 경륜적인 영이신 성령으로 그분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7 장, 99-100 쪽)

주님께서 침례 받으시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죽음과 부활 안으로 놓여지심으로써

그분께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 그 세 가지는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내려오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마 3:16 각주 2)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주 예수님 위에 내려오심으로,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온순함과 단일함으로 사역하셨다.(마 3:16 각주 4)

그 영께서 내려오신 것은 그리스도께 기름 부으신 것이었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라는 증거였다.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그림인데, 아들은 물에서 올라오셨고, 그 영은 아들 위에 내려오셨으며, 아버지는 아들에 관해 말씀하셨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께서 동시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마 3:17 각주 2)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10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4-5 장

**3/31 목요일**

마 6:9-10, 13

9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시며,

10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 8:1-2

1 오, 여호와 저희의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습니다!

2 주님께서 주님의 대적들 때문에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능력을 세우심은 원수와 보복자를 잠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엡 5:25b-27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계 11:15

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계 21:6-7

6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7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오늘의 읽을 말씀**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라고 부를 권위와 권리가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 이

##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간단하지만 중대한 기도는 많은 중요한 항목들을 다룬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속된 것에서 분별되고 구별되는 것을 뜻한다. ...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기도하려 한다면, 단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생활, 즉 속된 것에서 분별된 생활을 매일 해야 한다.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속된 것에서 분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될 것을 요구한다. 우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구별되고 분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게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도록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 사람의 생활, 11 장, 145-146 쪽)

---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의 왕국이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사탄이 오늘날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한다(요 12:31). 사탄의 왕국인 이 세상에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없다. 로마서 14 장 17 절은 왕국 생활의 실재는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한다. 오늘날 사탄의 왕국 안에는 화평이 없으므로 기쁨이 없다. 국제 연합(UN)에서는 화평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지만, 의가 없기 때문에 화평이 없다. 화평은 의의 결과이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서에서, 매우 특별한 것인 의가 새 하늘들과 새 땅에 거한다고 말한다(벧후 3:13), 장차 올 왕국인 천년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일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는 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통치자인 사탄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사탄의 뜻은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사탄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스탈린은 멸망했다.

나폴레옹은 그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신성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다스림 곧 천국을 이 땅에 이끌어 오는 것이다.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6 장 9 절과 10 절에 언급된 이름과 왕국과 뜻, 이 세 가지는 한 분이신 삼일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름은 아버지께 속하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왕국은 아들에게 속하고 뜻은 그 영께 속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하늘들에서 우세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우세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다음과 같이 끝맺는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마 6:13) 여기에는 아버지의 왕국과 능력과 영광에 대한 인식과 찬양이 있다. 이것은 또한 삼일 하나님을 가리킨다. 왕국은 아들에게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영역이다. 능력은 그 영께 속한 것으로서,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를 수행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순서로 삼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또한 여기서는 아들과 영과 아버지의 순서로 삼일 하나님으로 끝마침을 가리킨다. 이처럼 주님께서 그분의 최고의 가르침에서 가르치신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끝마친다. 아버지 하나님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 사람의 생활, 11 장, 146-14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4 권, 하나님-사람의 생활, 11 장

## 4/1 금요일

마 12:28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요 14:10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전 12:6

6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롬 12:3-8

3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4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6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언하십시오.

7 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

8 권유하는 사람이면 그 권유하는 일에 신실하십시오. 나누어 주는 사람은 단순하게,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십시오.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골 2:19

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2 장 28 절에서 주님은 “그러나 내(아들)가 하나님(아버지를 포함하는 삼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삼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2 장 28 절은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보다 더 깊은 의미와 계시를 보기 위해서 이 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을 필요가 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의 왕국이 백성에게 임하도록 홀로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실 수 없었는가? 이렇게 하셨다 한들 무슨 잘못이 있었겠는가? 만일 아들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하신 것이다. ... 그분이 귀신들을 쫓아내신 방식은 그분이 겸손하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 그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무언가를 행하고 계셨다. 그분은 결코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아름답지 않은가? 이것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 있는 탁월함을 보여 준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5 장, 65~66 쪽)

---

이것은 확실히 우리의 동역을 위한 좋은 본이다. 주님은 많은 지체로 구성된 한 몸을 산출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는 그분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일하고 계셨다. 그분은 그 무엇도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몸 안에서 동역하는 본이 아닌가? 우리는 자신이 머리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셨다.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합당한 동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충분하게 건축되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몸의 모든 지체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하고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취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를 할 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것은 나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닌 몇몇 다른 이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더 나아가 내가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유익과 권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아름다움이고, 이 아름다움이 우리가 닦아야 하는 참된 탁월함, 참되고도 신성한 속성, 뛰어난 미덕이다.

주님은 자신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다른 한 분에 의하여, 다른 한 분을 위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영은 매우 겸손하셨고 사심이 전혀 없으셨다. 그분은 그 무엇도 자신을 위하거나 자신에 의해서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는 자아가 전혀 없었고 사심에 속한 요소가 전혀 없었다. 이것이 아름다움이다.

마태복음 12 장 28 절에서 볼 수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움직임은 우리가 따라야 할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본보기이다. 그분은 어떤 일을 자신을 향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신뢰하지도 않으셨다. 신약의 기록은 신성한 삼일성 안에 있는 그러한 탁월함과 아름다움과 미덕들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이 사랑스러운 본안에는 매우 많은 아름다운 항목들이 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추심으로써 비천한 사람이 되셨으며 심지어 노예가 되셨다. 그분은 노예로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신에 의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나, 자신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하셨다.

교회생활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섬기며 생활하고 있는 한 무리의 형제자매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들의 섬김 안에서 그들은 하나이고 매우 조화를 이룬다. 그들은 모두 겸손하다. 그들 중에는 자신을 위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을 향하는 사람이 없다. 몸 안에서의 그러한 섬김에서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땅에 이러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섬기는 수천의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뛰어나겠는가! ... 교회생활에서 조화를 이루려면 겸손과 사심 없음이 필요하다. ... 신성한 삼일성은 우주 안에서 이러한 종류의 아름다움을 전람하는데 앞장서셨다. 셋 가운데서 아들은 앞장서시어 전혀 사심이 없으셨고, 아주 겸손하셨으며, 다른 분들에게 매우 사려가 깊으셨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5 장, 66-67, 69-70, 7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5 장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4/2 토요일

오늘의 읽을 말씀

마 28:19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행 19:5

5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갈 3:26-28

26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28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12:12-13

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요 15:4-5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그분과의 영적이고 비밀한 연결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마 28:19 각주 5)

여기서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은 단수이다. 그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하다. 어떤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 (마 28:19 각주 4)

---

마태복음 28 장 19 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 안으로,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라고 명령하셨다. 마태복음의 이 부분에서 삼일 하나님은 완성되었고 완결되었다. 신성한 삼일성은 완성되고 완결되시기 위해 인성을 취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했다. 그분께서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곧 완성되신 삼일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그분께서는 신성뿐 아니라 인성도 필요하셨다.

그분은 또한 아름답고도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통과하셔야 했다. ... 우리 모두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랑할 만하고 사랑스러우며, 삼일 하나님은 그분의 완성 곧 완결을 위해 그러한 죽음을 필요로 하셨다. 신성한 삼일성은 의심할 여지없이 전능하시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 이러한 아름다운 죽음이 없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 있다. 삼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한 약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의 죽음의 죽이는 요소를 지니고 계신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약 안에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으며, 또한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죽음의 요소도 있다.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주 안에 있는 부정적인 세균들을 모두

없애 버렸다. 이러한 죽음이 신성한 삼일성 안으로 더해졌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을 거치신 후,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부활의 분위기와 실제 안에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어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 인격, 실제 안으로 민족들을 침례 주어 그들을 왕국 백성이 되게 하라고 분부하셨다. 이제 신성한 삼일성께서 완성되시고 완결되셨으므로 사람들은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완성되신 삼일 하나님, 곧 완결되신 신성한 삼일성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때, 그들을 완성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넣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신성한 삼일성의 이름이며, 우리는 바로 이 이름 안으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다. 주님은 우리의 전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넣기를 갈망하셨는데, 그분은 이러한 갈망의 맥락에서 이 신성한 칭호를 계시하셨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두어야 할 곳이다.

우리는 가서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침례를 준다. 제자로 삼다'라는 말은 강한 표현이다. 제자들은 믿지 않는 민족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줌으로써 그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다. 이것은 제자로 삼는 것이 침례주는 것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어 그들을 삼일 하나님이라는 한 인격 안으로 넣음으로써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그들이 이 인격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제자가 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으면서 복음만 전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은 즉시 그들에게 침례를 주어야 한다. 침례를 줌으로써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은 그들이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신성한 움직임과 우리의 체험에서의 신성한 경륜과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만일 우리가 그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끌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 안으로 그들을 넣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넣는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5 장, 70-7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우리의 영과 함께 하는 그 영, 3 장

4/3 주일

엡 3:14-21

14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15 아버지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 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2-5, 7 장

위트니스리 고봉 메시지, 14 권, 사랑의 말씀, 2 장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10 장

2022. 3. 28 ~ 2022. 4. 1

단체로 읽을 말씀: "하나님을 누리는 길"  
19 장

찬송 #9 / 영한 동번 #12

9 장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1.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거룩하고 풍성해 영원토록—영원—토록 생수—처럼 흘러
2. 아들 안에 흐른—사랑 인류—에게 흘러 생명으로—우리—안에 흘러—들어왔네
3. 우리들은 각각—떠나 제 길—로 갔지만 그 아들 우—릴 구—속해 생명—을 주셨네
4. 우리는 성령의—음성 거절—할지라도 주는 여전—히 내—안에 생명—공급하네
5. 이미 나와 영 안—에서 연합—되신 주님 그 성분—으로 교—통해 기름—부음 주네
6. 하나님 긍휼과—사랑 아들의—은혜와 영의 교통—날 영—원히 풍성—누리게 해
7. 주님의 끝없는—사랑 우린 다만 찬양해 서로 화답하며 찬—양해 삼일—의 하나님